

2026
05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마가복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금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매주 토 | 새로운홀(가든파이브 패션관 10층)



빈 무덤을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그분의 영광된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던 무덤이 비어 있듯이, 우리가 자꾸 빈 무덤을 다시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을 망각의 바다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낙시 금지'라는 뜻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우리가 특하면 돌아가서 낙시를 해서 그것들을 건져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

시는데, 우리가 특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죄책감 속에 머물고, 옛 습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빈 무덤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옛사람에게서 완전히 헤어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상태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로 물든 옛사람에 대한 애착입니다. '나쁜 남자 신드롬'이라고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착한 남자가 아닌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려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서 죄가 나쁜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아직 거기서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빈 무덤을 자꾸 다시 채우려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새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지 않는 결단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무덤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관계를 다시 열고 옛 중독을 다시 건드리고 옛 상처를 다시 깨웁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고, 퇴보하게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것보다, 이미 죽은 것을 다시 살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얼마나 회개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돌아가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삽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이 나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워낙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의식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예수 믿은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습관화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마귀가 자꾸 우리의 죄악 된 옛사람을 살리려 할 텐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비결은 유혹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몸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입을 사용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기 전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손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 버린 것은 마귀가 입맛만 씹쓸히 다실뿐 어찌저지를 못합니다.

옛사람으로 자꾸 회귀하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은 단 한순간의 화끈한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아마 천국 갈 때까지 평생 지속될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순간적인 회개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단절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순간 순간 주의 은혜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관홍*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마가복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금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매주 토 | 새로운홀(가든파이브 패션관 10층)



2026.
05

SAEROUN

주일	월	화	수
26	27	28	29
3 가정주일	4	5 어린이날	6
10 교사주일 새가족 133기 1주차 교육	11	12	13
17	18	19	20
24	25 대체휴일	26	27
31 한나기도회			

QT

목	금	토
30	1 노동절	2
7	8 온가족예배	9
14	15	16
21	22	23
28	29	30 순장훈련 종강

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6.
05

1	금	[노동절] 하나님어 주신 몫으로 사는 기쁨	전 5:10-20
2	토	감출 수 없는 빛	막 4:21-25
3	주일	엘리의 아들들 vs 사무엘	삼상 2:12-26
4	월	무너진 시대, 남은 한 사람	말 2:1-9
5	화	[어린이날]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	딤후 3:14-17
6	수	하나님의 나라	막 4:26-34
7	목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	막 4:35-41
8	금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막 5:1-20
9	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막 5:21-24, 35-43
10	주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다	삼상 3:1-18
11	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 10:1-18
12	화	절망 중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라	막 5:25-34
13	수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	막 6:1-6
14	목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	막 6:7-13
15	금	세례요한의 죽음	막 6:14-29
16	토	목자 없는 사람들	막 6:30-44
17	주일	사무엘을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다	삼상 3:19-21
18	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렘 1:4-10
19	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막 6:45-56
20	수	입술은 가까이, 마음은 멀리	막 7:1-13
21	목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막 7:14-23
22	금	은혜의 부스러기	막 7:24-30
23	토	에바다	막 7:31-37
24	주일	언약궤를 빼앗기다	삼상 4:1-18
25	월	형식만 남은 신앙의 몰락	렘 7:1-15
26	화	사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막 8:1-10
27	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막 8:11-21
28	목	점점 밝아지는 믿음의 눈	막 8:22-26
29	금	주를 안다고 말할 때	막 8:27-33
30	토	목숨을 건 제자도	막 8:34-9:1
31	주일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	삼상 5:1-12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감출 수 없는 빛

막 4:21-25

2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He said to them, "Do you bring in a lamp to put it under a bowl or a bed? Instead, don't you put it on its stand?"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24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he continue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and even more.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from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03

주일

엘리의 아들들 vs 사무엘

삼상 2:12-26

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Eli's sons were scoundrels;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Now it was the practice of the priests that, whenever any of the people offered a sacrifice, the priest's servant would come with a three-pronged fork in his hand while the meat was being boiled

14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 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and would plunge the fork into the pan or kettle or caldron or pot. Whatever the fork brought up the priest would take for himself. This is how they treated all the Israelites who came to Shiloh.

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But even before the fat was burned, the priest's servant would come and say to the person who was sacrificing, "Give the priest some meat to roast; he won't accept boiled meat from you, but only raw."

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If the person said to him, "Let the fat be burned first, and then take whatever you want," the servant would answer, "No, hand it over now; if you don't, I'll take it by force."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This sin of the young men was very great in the LORD's sight, for they were treating the LORD's offering with contempt.

18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But Samuel was ministering before the LORD—a boy wearing a linen ephod.

19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겹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Each year his mother made him a little robe and took it to him when she went up with her husband to offer the annual sacrifice.

20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매

Eli would bless Elkanah and his wife, saying, "May the LORD give you children by this woman to take the place of the one she prayed for and gave to the LORD." Then they would go home.

21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And the LORD was gracious to Hannah; she gave birth to three sons and two daughters. Meanwhile, the boy Samuel grew u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 하였음을 듣고

Now Eli, who was very old, heard about everything his sons were doing to all Israel and how they slept with the women who served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So he said to them, "Why do you do such things? I hear from all the people about these wicked deeds of yours.

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죄 하게 하는도다

No, my sons; the report I hear spreading among the LORD's people is not good.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If one person sins against another, God may mediate for the offender; but if anyone sins against the LORD, who will intercede for them?" His sons, however, did not listen to their father's rebuke, for it was the LORD's will to put them to death.

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And the boy Samuel continued to grow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people.

하나님의 나라

막 4:26-34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All by itself the soil produces grain—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kernel in the head.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As soon as the grain is ripe, he puts the sickle to it,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30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Again he said, "What shall we say the kingdom of God is like, or what parable shall we use to describe it?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is the smallest of all seeds on earth.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Yet when planted, it grows and becomes the largest of all garden plants, with such big branches that the birds can perch in its shade."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With many similar parables Jesus spoke the word to them, as much as they could understand.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a parable. But when he was alone with his own disciples, he explained everything.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다

삼상 3:1-18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The boy Samuel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t many visions.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One night Eli, whose eyes were becoming so weak that he could barely see, was lying down in his usual place.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and Samuel was lying down in the hous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God was.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Then the LORD called Samuel. Samuel answered, "Here I am."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And he ran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But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So he went and lay down.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Again the LORD called, "Samuel!"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My son,"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Now Samuel did not yet know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A third time the LORD called, "Samuel!"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Then Eli realized that the LORD was calling the boy.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So Eli told Samuel, "Go and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The LORD came and stood there, calling as at the other times, "Samuel! Samuel!" Then Samuel sai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And the LORD said to Samuel: "See, I am about to do something in Israel that will make the ears of everyone who hears about it tingle.

-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At that time I will carry out against Eli everything I spoke against his family—from beginning to end.

-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For I told him that I would judge his family forever because of the sin he knew about; his sons blasphemed God, and he failed to restrain them.

-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Therefore I swore to the house of Eli, "The guilt of Eli's house will never be atoned for by sacrifice or offering."

-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와 그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Samuel lay down until morning and then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He was afraid to tell Eli the vision,

-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but Eli called him and said, "Samuel, my son." Samuel answered, "Here I am."

- 17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What was it he said to you?" Eli asked. "Do not hide it from me. May God deal with you, be it ever so severely, if you hide from me anything he told you."

- 18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택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So Samuel told him everything, hiding nothing from him. Then Eli said, "He is the LORD; let him do what is good in his eyes."

절망 중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라

막 5:25-34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and had spent all she had, ye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cloak,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At once Jesus realized that power had gone out from him. He turned around in the crowd and asked, "Who touched my clothes?"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You see the people crowding against you," his disciples answered, "and yet you can ask, 'Who touched me?'"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But Jesus kept looking around to see who had done it.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Then the woman, 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at his feet and, trembling with fear, told him the whole truth.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

막 6:1-6

-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Jesus left there and went to his hometown,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When the Sabbath came, he began to teach in the synagogue, and many who heard him were amazed. "Where did this man get these things?" they asked. "What's this wisdom that has been given him? What are these remarkable miracles he is performing?"

-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Isn't this the carpenter? Isn't this Mary's son and the brother of James, Joseph, Judas and Simon? Aren't his sisters here with us?" And they took offense at him.

-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Jesus said to them,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except in his own town, among his relatives and in his own home."

-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He could not do any miracles there, except lay his hands on a few sick people and heal them.

- 6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He was amazed at their lack of faith. Then Jesus went around teaching from village to villag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

막 6:7-13

7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Calling the Twelve to him, he began to send them out two by two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impure spirits.

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These were his instructions: "Take nothing for the journey except a staff—no bread, no bag, no money in your belts.

9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Wear sandals but not an extra shirt.

10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Whenever you enter a house,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And if any place will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 leave that place and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as a testimony against them."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They went out and preached that people should repent.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They drove out many demons and anointed many sick people with oil and healed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렘 1:4-10

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Alas, Sovereign LORD," I said, "I do not know how to speak; I am too young."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But the LORD said to me, "Do not say, 'I am too young.' You must go to everyone I send you to and say whatever I command you.

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시고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Then the LORD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said to me,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See, today I appoint you over nations and kingdoms to uproot and tear down, to destroy and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19

화요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막 6:45-56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고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to pray.

47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Later that night,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Shortly before dawn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49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Immediately he spoke to them and s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51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52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aves; their hearts were hardened.

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When they had crossed over, they landed at Gennesaret and anchored there.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As soon as they got out of the boat, people recognized Jesus.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They ran throughout that whole region and carried the sick on mats to wherever they heard he was.

56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예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And wherever he went—into villages, towns or countryside—they placed the sick in the marketplaces. They begged him to let them touch even the edge of his cloak, and all who touched it were heal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막 7:14-23

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Again Jesus called the crowd to him and said, "Listen to me, everyone, and understand this.

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Nothing outside a person can defile them by going into the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person that defiles them."

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After he had left the crowd and entered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about this parable.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Are you so dull?" he asked. "Don't you see that nothing that enters a person from the outside can defile them?"

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For it doesn't go into their heart but into their stomach, and then out of the body." (In saying this, Jesus declared all foods clean.)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He went on: "What comes out of a person is what defiles them.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For it is from within, out of a person's heart, that evil thoughts come—sexual immorality, theft, murder,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adultery, greed, malice, deceit, lewdness, envy, slander, arrogance and folly.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All these evils come from inside and defile a perso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은혜의 부스러기

막 7:24-30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Jesus left that place and went to the vicinity of Tyre. He entered a house and did not want anyone to know it; yet he could not keep his presence secret.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In fact,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 woman whose little daughter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ame and fell at his feet.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The woman was a Greek, born in Syrian Phoenicia. She begged Jesus to drive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First le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he told her, "for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 dogs."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Lord," she replied, "even the dogs under the table eat the children's crumbs."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Then he told her,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She went home and found her child lying on the bed, and the demon gon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에바다

막 7:31-37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Then Jesus left the vicinity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down to the Sea of Galilee and into the region of the Decapolis.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There some people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could hardly talk, and they begged Jesus to place his hand on him.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After he took him aside, away from the crowd, Jesus put his fingers into the man's ears. Then he spit and touched the man's tongue.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Ephphatha!" (which means "Be opened!").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At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ned and he began to speak plainly.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Jesus commanded them not to tell anyone. But the more he did so, the more they kept talking about it.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People were overwhelmed with amazement. "He has done everything well," they said. "He even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언약궤를 빼앗기다

삼상 4:1-18

-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And Samuel's word came to all Israel. Now the Israelites went out to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The Israelites camped at Ebenezer, and the Philistines at Aphek.

-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The Philistines deployed their forces to meet Israel, and as the battle spread, Israel was defeated by the Philistines, who killed about four thousand of them on the battlefield.

-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When the soldiers returned to camp, the elders of Israel asked, "Why did the LORD bring defeat on us today before the Philistines? Let us bring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Shiloh, so that he may go with us and sav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그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So the people sent men to Shiloh, and they brought back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lmighty,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were there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 5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When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came into the camp, all Israel raised such a great shout that the ground shook.

-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 지라

Hearing the uproar, the Philistines asked, "What's all this shouting in the Hebrew camp?" When they learned that the ark of the LORD had come into the camp,

-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 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the Philistines were afraid. "A god has come into the camp," they said. "Oh no! Nothing like this has happened before.

-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We're doomed! Who will deliver us from the hand of these mighty gods? They are the gods who struck the Egyptians with all kinds of plagues in the wilderness.

-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Be strong, Philistines! Be men, or you will be subject to the Hebrews, as they have been to you. Be men, and fight!"

10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었 드러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So the Philistines fought, and the Israelites were defeated and every man fled to his tent. The slaughter was very great; Israel lost thirty thousand foot soldiers.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حاس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The ark of God was captured,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died.

12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That same day a Benjamite ran from the battle line and went to Shiloh with his clothes torn and dust on his head.

13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매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When he arrived, there was Eli sitting on his chair by the side of the road, watching, because his heart feared for the ark of God. When the man entered the town and told what had happened, the whole town sent up a cry.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Eli heard the outcry and asked, "What is the meaning of this uproar?" The man hurried over to Eli,

15 그 때에 엘리의 나이가 구십팔 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who was ninety-eight years old and whose eyes had failed so that he could not see.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He told Eli, "I have just come from the battle line; I fled from it this very day." Eli asked, "What happened, my son?"

17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حاس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The man who brought the news replied, "Israel fled before the Philistines, and the army has suffered heavy losses. Also your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are dead, and the ark of God has been captured."

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

When he mentioned the ark of God, Eli fell backward off his chair by the side of the gate. His neck was broken and he died, for he was an old man, and he was heavy. He had led Israel forty years.

사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막 8:1-10

1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During those days another large crowd gathered. Since they had nothing to e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they have already been with me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3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If I send them home hungry, they will collapse on the way, because some of them have come a long distance."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His disciples answered, "But where in this remote place can anyone get enough bread to feed them?"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How many loaves do you have?" Jesus asked. "Seven," they replied.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He tol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When he had taken the seven loaves and given thanks,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distribute to the people, and they did so.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They had a few small fish as well; he gave thanks for them also and told the disciples to distribute them.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The people ate and were satisfied. Afterward the disciples picked up seven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흠여 보내시고

About four thousand were present. After he had sent them away,

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he got into the boat with his disciples and went to the region of Dalmanutha.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막 8:11-21

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question Jesus. To test him, they asked him for a sign from heaven.

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He sighed deeply and said, "Why does this generation ask for a sign? Truly I tell you, no sign will be given to it."

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Then he left them, got back into the boat and crossed to the other side.

14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The disciples had forgotten to bring bread, except for one loaf they had with them in the boat.

15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Be careful," Jesus warned them. "Watch out for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that of Herod."

16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They discussed this with one another and said, "It is because we have no bread."

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them: "Why are you talking about having no bread? Do you still not see or understand? Are your hearts hardened?"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Do you have eyes but fail to see, and ears but fail to hear? And don't you remember?

19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When I broke the five loaves for the five thousand,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Twelve," they replied.

20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And when I broke the seven loaves for the four thousand, how many basketfuls of pieces did you pick up?" They answered, "Seven."

21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He said to them, "Do you still not understan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주를 안다고 말할 때

막 8:27-33

27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 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n to the villages around Caesarea Philippi. On the way he asked them, "Who do people say I am?"

28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one of the prophets.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You are the Messiah."

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Jesus warn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He then began to teach them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after three days rise again.

32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He spoke plainly about this, and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33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But when Jesus turned and looked at his disciples, he rebuked Peter. "Get behind me, Satan!" he sai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목숨을 건 제자도

막 8:34-9:1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save it.

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What good is it for someone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their soul?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Or what can anyone give in exchange for their soul?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in this adulterous and sinful generation,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them when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with the holy angels."

1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And he said to them, "Truly I tell you,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with pow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

삼상 5:1-12

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After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the ark of God, they took it from Ebenezer to Ashdod.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Then they carried the ark into Dagon's temple and set it beside Dagon.

3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When the people of Ashdod rose early the next day,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They took Dagon and put him back in his place.

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But the following morning when they rose,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His head and hands had been broken off and were lying on the threshold; only his body remained.

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That is why to this day neither the priests of Dagon nor any others who enter Dagon's temple at Ashdod step on the threshold.

6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시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The LORD's hand was heavy on the people of Ashdod and its vicinity; he brought devastation on them and afflicted them with tumors.

- 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
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When the people of Ashdod saw what was happening, they sai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must not stay here with us, because
his hand is heavy on us and on Dagon our god."

- 8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
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So they called together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nd asked
them,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They
answered, "Have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moved to Gath." So
they move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 9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와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
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But after they had moved it, the LORD's hand was against that
city, throwing it into a great panic. He afflicted the people of the
city, both young and old, with an outbreak of tumors.

- 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
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
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So they sent the ark of God to Ekron. As the ark of God was
entering Ekron, the people of Ekron cried out, "They have
brought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around to us to kill us
and our people."

- 11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
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
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
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So they called together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nd
said, "Sen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away; let it go back
to its own place, or it will kill us and our people." For death
had filled the city with panic; God's hand was very heavy
on it.

- 12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Those who did not die were afflicted with tumors, and the
outcry of the city went up to heaven.

2026.
05

순예배 가이드

01

1. 5월 첫째 주 (5/3-9)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다 (삼상 3:1-18)

2. 5월 둘째 주 (5/10-16)

사무엘을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다 (삼상 3:19-21)

3. 5월 셋째 주 (5/17-23)

언약궤를 빼앗기다 (삼상 4:1-18)

4. 5월 넷째 주 (5/24-30)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 (삼상 5:1-12)

WORSHIP

01

[순예배 가이드] 5월 첫째 주 (5/3-9)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다

사무엘상 3:1-18

지난주 본문 요약 | 엘리의 아들들 vs 사무엘 (삼상 2:12-26)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였으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자라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p>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p> <p>The boy Samuel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there were not many visions.</p>	
<p>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p> <p>One night Eli, whose eyes were becoming so weak that he could barely see, was lying down in his usual place.</p>	

* **희귀하여(1절):** '드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영적 암흑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관찰/해석
<p>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p> <p>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and Samuel was lying down in the hous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God was.</p>
<p>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p> <p>Then the LORD called Samuel. Samuel answered, "Here I am."</p>
<p>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p> <p>And he ran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But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 So he went and lay down.</p>
<p>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p> <p>Again the LORD called, "Samuel!"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My son," Eli said, "I did not call; go back and lie down."</p>

* **눈이 점점 어두워(2절):** 육체적 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7절):**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경험이 아직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관찰/해석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Now Samuel did not yet know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A third time the LORD called, "Samuel!" And Samuel got up and went to Eli and said, "Here I am; you called me." Then Eli realized that the LORD was calling the boy.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So Eli told Samuel, "Go and lie down, and if he calls you,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So Samuel went and lay down in his place.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니

The LORD came and stood there, calling as at the other times, "Samuel! Samuel!" Then Samuel said,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관찰/해석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And the LORD said to Samuel: "See, I am about to do something in Israel that will make the ears of everyone who hears about it tingle.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At that time I will carry out against Eli everything I spoke against his family—from beginning to end.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For I told him that I would judge his family forever because of the sin he knew about; his sons blasphemed God, and he failed to restrain them.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Therefore I swore to the house of Eli, 'The guilt of Eli's house will never be atoned for by sacrifice or offering.'

관찰/해석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와 그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Samuel lay down until morning and then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of the LORD. He was afraid to tell Eli the vision,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but Eli called him and said, "Samuel, my son." Samuel answered, "Here I am."

17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What was it he said to you?" Eli asked. "Do not hide it from me. May God deal with you, be it ever so severely, if you hide from me anything he told you."

18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So Samuel told him everything, hiding nothing from him. Then Eli said, "He is the LORD; let him do what is good in his eyes."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손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삼상 3: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WORSHIP

02

[순예배 가이드] 5월 둘째 주 (5/10-16)

사무엘을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다

사무엘상 3:19-21

지난주 본문 요약 |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다 (삼상 3:1-18)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알리시매 사무엘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The LORD was with Samuel as he grew up, and he let none of Samuel's words fall to the ground.

- * **자라매(19절):** 단순한 신체 성장만이 아닌, 영적 성숙과 인격의 성장을 포함합니다.
- *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19절):**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메시지를 친히 보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관찰/해석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And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recognized that Samuel was attested as a prophet of the LORD.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The LORD continued to appear at Shiloh, and there he revealed himself to Samuel through his word.

- *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20절):**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단'과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 * **실로(21절):**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 사사시대까지 성막이 있었던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손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2.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3. 나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와 임재가 가득한 실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빛이 삶의 구석구석마다 비추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삼상 3: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순예배 가이드] 5월 셋째 주 (5/17-23)

03

언약궤를 빼앗기다

사무엘상 4:1-18

지난주 본문 요약 | 사무엘을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다 (삼상 3:19-21)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에 선지자로 세워졌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내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And Samuel's word came to all Israel. Now the Israelites went out to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The Israelites camped at Ebenezer, and the Philistines at Aphek.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The Philistines deployed their forces to meet Israel, and as the battle spread, Israel was defeated by the Philistines, who killed about four thousand of them on the battlefield.

관찰/해석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When the soldiers returned to camp, the elders of Israel asked, "Why did the LORD bring defeat on us today before the Philistines? Let us bring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Shiloh, so that he may go with us and sav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So the people sent men to Shiloh, and they brought back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lmighty,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were there with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5 여호와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When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came into the camp, all Israel raised such a great shout that the ground shook.

*** 언약궤(3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 언약(십계령)이 기록된 두 돌비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었고, 광야에서 진군할 때나, 요단강을 건널때, 여리고 전쟁 때 앞세워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관찰/해석

-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와 그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Hearing the uproar, the Philistines asked, "What's all this shouting in the Hebrew camp?" When they learned that the ark of the LORD had come into the camp,

-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the Philistines were afraid. "A god has come into the camp," they said. "Oh no! Nothing like this has happened before.

-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We're doomed! Who will deliver us from the hand of these mighty gods? They are the gods who struck the Egyptians with all kinds of plagues in the wilderness.

-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Be strong, Philistines! Be men, or you will be subject to the Hebrews, as they have been to you. Be men, and fight!"

관찰/해석

- 10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었드러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So the Philistines fought, and the Israelites were defeated and every man fled to his tent. The slaughter was very great; Israel lost thirty thousand foot soldiers.

-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The ark of God was captured, and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died.

- 12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That same day a Benjamite ran from the battle line and went to Shiloh with his clothes torn and dust on his head.

- 13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매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When he arrived, there was Eli sitting on his chair by the side of the road, watching, because his heart feared for the ark of God. When the man entered the town and told what had happened, the whole town sent up a cry.

관찰/해석

14 엘리야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됴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Eli heard the outcry and asked, "What is the meaning of this uproar?" The man hurried over to Eli,

15 그 때에 엘리의 나이가 구십팔 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who was ninety-eight years old and whose eyes had failed so that he could not see.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 아들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He told Eli, "I have just come from the battle line; I fled from it this very day." Eli asked, "What happened, my son?"

17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The man who brought the news replied, "Israel fled before the Philistines, and the army has suffered heavy losses. Also your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are dead, and the ark of God has been captured."

관찰/해석

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야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

When he mentioned the ark of God, Eli fell backward off his chair by the side of the gate. His neck was broken and he died, for he was an old man, and he was heavy. He had led Israel forty years.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 어떠한 영적 전쟁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물으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 상황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 말씀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육신은 쇠하나, 영의 눈은 언제나 밝게 빛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삼상 4: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04

[순예배 가이드] 5월 넷째 주 (5/24-30)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

사무엘상 5:1-12

지난주 본문 요약 | 언약궤를 빼앗기다 (삼상 4:1-18)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후에, 언약궤와 함께 다시 전쟁을 벌였으나, 또 다시 크게 살륙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훌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p>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After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the ark of God, they took it from Ebenezer to Ashdod.</p>	
<p>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Then they carried the ark into Dagon's temple and set it beside Dagon.</p>	
<p>3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When the people of Ashdod rose early the next day,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They took Dagon and put him back in his place.</p>	

* **다곤(2절):** 머리와 손은 사람 모습을 하고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블레셋 족속의 주신이며, 농사를 주관하는 우상입니다.

관찰/해석

- 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But the following morning when they rose,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His head and hands had been broken off and were lying on the threshold; only his body remained.
- 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That is why to this day neither the priests of Dagon nor any others who enter Dagon's temple at Ashdod step on the threshold.
- 6 여호와와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The LORD's hand was heavy on the people of Ashdod and its vicinity; he brought devastation on them and afflicted them with tumors.
- 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When the people of Ashdod saw what was happening, they sai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must not stay here with us, because his hand is heavy on us and on Dagon our god."
- 8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So they called together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nd asked them,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They answered, "Have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moved to Gath." So they move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관찰/해석

9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시니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But after they had moved it, the LORD's hand was against that city, throwing it into a great panic. He afflicted the people of the city, both young and old, with an outbreak of tumors.

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러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So they sent the ark of God to Ekron. As the ark of God was entering Ekron, the people of Ekron cried out, "They have brought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around to us to kill us and our people."

11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So they called together all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and said, "Send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away; let it go back to its own place, or it will kill us and our people." For death had filled the city with panic; God's hand was very heavy on it.

12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Those who did not die were afflicted with tumors, and the outcry of the city went up to heaven.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항상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회피하는 신앙이 아닌,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찬양하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삼상 5:3]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2026.
05

주니어청년부, 청년1부, 청년2부 간증



02

1. 이세림 성도 (Jr. 청년부)
2. 윤준호A 성도 (Jr. 청년부)
3. 강하늘 성도 (청년1부)
4. 이예인 성도 (청년1부)
5. 이수연F 성도 (청년2부)
6. 이제훈A 성도 (청년2부)



REBOOT 다시 가슴이 뛰는 시간!

이세림 성도 (Jr. 청년부)



저는 작년에 주니어청년부에 처음 올라오고 적응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갔던 두 번의 주청 수련회 모두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장 모임을 2달 동안 하면서 수련회를 위해, 주니어청년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순장단과 목사님과 함께 매주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중보기도팀에 합류한 저는 개회 예배 중보기도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많은 생각과 감정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등부에 처음 올라가서 갔던 첫 수련회가 중고등부 연합 겨울수련회였는데, 저녁 집회 때 언니 오빠들이 앞에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다시 함께 예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벅찬 마음과 깊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2일 차 저녁 집회인데,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을 받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주제 말씀인 베드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 깊이 다가왔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 가고 있나요?’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표현하지 못한 불안과 복잡한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쏟아져 나오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쏟아내듯이 하고 지체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다시 찬양을 하는데 주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 할 것 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방방 뛰며 찬양하는 우리가 정말 참되고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은 느린 파노라마처럼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다시 가슴이 뛰는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수련회에 함께한 모든 주청 지체들과 예배팀, 순장단, 리더십, 간사님들, 멘토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우리 모세5순 순원들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RE:BOOT! 다시 가슴이 뛰는 2026년 주니어청년부의 앞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REBOOT : 멈춰 있던 신앙이 다시 뛰기 시작한 시간

윤준호A 성도 (Jr. 청년부)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7살 때 제주로 이사하며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후 경기도의 작은 교회에서 17살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18살에 한홍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21살에 새가족 교육을 통해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전역 후에도 신앙은 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와 야구를 핑계로 주청 모임에 빠지기도 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드렸던 기도조차 지키지 못한 제 모습을 돌아보며, 이번에는 반드시 수련회에 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결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가락 부상과 팔꿈치 통증이 재발했고,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니까지 뽑고 몸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들은 말씀

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제 삶을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리가 저려 앉을 수조차 없을 때까지 기도하며,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튿날에도 베드로 설교를 들으며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주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찬양의 시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멈춰 있던 제 신앙이 다시 뛰기 시작한, 말 그대로 RE:BOOT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불드심으로 끝까지 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REBOOT

강하늘 성도 (청년1부)



유난히 분주하고 지친 연초를 보내며,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래왔습니다. 리더십의 권유로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제가 팀원도 아닌 디자인팀 팀장을 맡는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부족하지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현실적인 걱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근무로 순장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과 주중의 잦은 야근, 그리고 부족한 체력까지 여러 가지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연락을 드린 모두가 감사하게도 기쁨으로 동참해 주어 그렇게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까지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의견을 나누며 애써 준 모든 준비팀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인 포스터가 홍보부스에 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기도 팸플릿이 놓이며, 교회 곳곳에 붙은 청년 1부 수련회 포스터를 보며 기도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성인 공동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마음을 통해 이번 수련회가 단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많은 기도와 청년들의 헌신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배로 살아내고자 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단지 복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 지라”(창세기 12장 2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죄송함이 앞서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청년 1부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마음

이예인 성도 (청년1부)



수련회를 가기 며칠 전까지 제 마음은 온통 연봉 협상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수련회를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원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영적인 준비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 청년 1부 지체들이 누려야 할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게 되면 어떡하야 할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게 되면 어떡하야 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부탁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사역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주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남 주기 위해 공부하자’는 문장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비전을 향해 달려왔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느새 ‘나를 위한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수련회 프로그램 팀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고,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

게 하셨습니다.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팀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함께’라는 공동체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큰 감사와 기쁨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이 되는 선택만 하고 싶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곧 나의 죄이며,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스스로를 숨기려 하기보다, 그 연약함과 답답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라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 믿음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겠습니다

이수연F 성도 (청년2부)



과거, 저의 잘못이 아님에도 상처받은 일들로 인해 깊이 고통받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순간들이 생생히 박제되어 이따금 되새겨질 때마다 자기 연민과 자책이 뒤엉킨 우울감이

빠지고는 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미래에까지 드리워지며, 저는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해 보려 애썼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스스로를 어찌할 줄 몰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삶을 어떻게, 왜 살아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말,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게 하였고, 예배마다 감사와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저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처음으로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수련회를 정확히 일주일 앞둔 때였습니다. 미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아니 내려놓지 않았던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과 상처, 깊이 뿌리내린 쓴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좌절과 낙망이 제 생각과 마음을 어둠으로 뒤덮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또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Broken Heart'가 수련회의 개막 주제인지도 몰랐던 저를,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특강에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며, 결코 닳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제가 너무도 닳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예기치 않은 불행 앞에 무너졌고, 그 속에 남은 낙망과 좌절이 결국 '억울함'으로 자리 잡았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쓴 뿌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그간 제가 외면했던 그 상처들을 기어코 드러내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불안으로 안절부절못하던 제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느꼈습니다. GBS 목상을 통해 마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나를 향해 손을 뻗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저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저를 높이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지나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였고, 이 유한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베드로와 같이 빛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 생명과 믿음을 주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신비로운 사랑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가겠다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손을 내밀 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훈A 성도 (청년2부)



지난가를 새로운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한 동안은 배우고 깨달은 신앙의 가치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허덕이며 부정적 사고에 휩싸이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가는 세상과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할지 의문과 의심은 커져 갔습니다. 일상과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삶이 반복됐습니다. 거대한 담론을 따지고 들었지만 정작 저는 작은 일상을 변화시킬 용기와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점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주님은 다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고백하게 하였고, 주님의 몸 된 교회, 너무도 귀한 청년2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수련회는 정말 큰 기대가 됐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죽어있던 영역을 Re:BOOT 해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련회의 첫날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저의 상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나인 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 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부활하사 세상을 이기

신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울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문제를 깨닫고 깨어질 때,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작디작은 저를 찾으시고, 사명을 주시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어촌을 찾아오사 일상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을 보며, 매번 거창한 일만 꿈꾸고 작은 일상은 등한시하던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저에게 딱 맞는 사명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란 소망을 주셨고,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와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시며 첫 만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질 때마다 항상 같은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앞으로 주어질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과 동행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봄 수련회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 아래 푸른 풀밭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다시 살리신 저를 인도하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도 기대됩니다. 특별히,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우리 새로운교회 청년2부가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2026.
05

예수 이름의 비밀 간증

03

1. 양지나 성도 (N서초공동체)
2. 박주혜 성도 (청년1부)
3. 심선영 집사 (W서초공동체)
4. 오민우 집사 (C강남공동체)

나의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양지나 성도 (N서초공동체)



저는 CES 양육과정 이후 멘토님의 권유로 남편과 함께 예이비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주 동안 한 번이라도 결석을 하면 다른 조원들도 모임

을 진행할 수 없고, 모든 조원들이 시간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조율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 다. 그 순간 ‘괜히 신청했다? 내가 과연 15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조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염려하지 말고 일단 첫 모임에 나와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조원들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는 ‘나는 여기 올 그릇이 아닌데, 왜 신청했지?’라는 생각과 함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 다. 이 모임에서 교회 사역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저뿐이었기 때문입니 다. 그런데 자매님들이 처음 만난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주 저에게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주 수업을 준비하며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소중했고, 과정이 끝난 후 남편과 함께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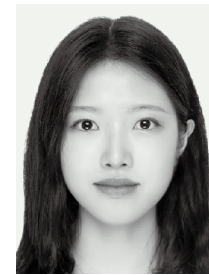
15주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목자이시고, 나는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실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15주 동안 받은 은혜는 단순히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 보자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 15주 과정까지 인도하시고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순종하며, 늘 말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예이비

박주혜 성도 (청년1부)



예이비 광고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 하고 싶었지만 ‘아, 이걸 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이비 인도로자로 섬기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꼭 해

보면 좋겠다고 권해 주셨고, 저는 기도하며 예이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이비를 하며 저는 저의 신앙이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제 삶의 운전대를 제가 붙잡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갈급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제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돌아보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이비를 하는 동안 말씀을 읽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매일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게 하였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말씀을 읽고 나누며, 혹 누군가 말씀 앞에서 멀어질 때에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공동체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예이비 양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과 이후의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저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जु다라기하던 모습을 내려놓고, 제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이비가 끝난 지금, 양육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는 시원한 마음이 드는 한편, 매주 예이비를 통해 나누었던 은혜와 교제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도 함께 듭니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예이비 인도자 스쿨을 통해 계속 배우며, 예이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예이비를 통해 항상 우리의 곁에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

심선영 집사 (W서초공동체)



사실 에이비를 시작하기 전, 갑자기 발병한 시어머님의 궤장암으로 그만두어야 하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토요일 수업 외에는

어머님을 잘 모시겠다 다짐하며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금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과정은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며, 다시금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함께 한 조로 묶어주신 7조 집사님들을 뵈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도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도 잔잔히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동안, 시어머님은 점점 생명을 다해가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오신 어머니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저와 남편 형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궤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고 오시던 어느 날, 남편이 넋지시 건넨 영접기도 권유를 마음이 가난해지고 연약해지신 어머니는 “그래, 받을게.”라며 그토록 기다리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영접기도와 세례까지 집에서 편안히 받으시고 주님의 딸이 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저와 남편 형제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자, 그리스도, LORD, 임마누엘, 어린양, 왕의 왕, 만유의 주재,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알파와 오메가, 성육신 되신 말씀, 평강의 왕, 대제사장, 포도나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어머니를 안겨드렸다고 생각하니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를 울아뻤던 가시와 영경귀를 모두 훌훌 벗어내고 환하게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 가게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 저는 에이비 인도자가 되어 조원님들과 예수님을 함께 나누며 소개하고 누릴 생각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놀라운 축복, 그 은혜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 나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의 일하심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나를 사랑해주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속으로

오민우 집사 (C강남공동체)



처음 에이비 과정을 접했을 때 제 삶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알던 성경 속 예수님의 이름들이 제

삶의 실제적인 해답이고 능력이며 위로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동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던 저에게 주님께서 그 귀한 이름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혹은 그 능력을 잊고 사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2~3년 단위로 부서를 옮기게 되는데, 매년 인사 시즌이 되면 주님께 갖은 앙탈과 험박(?)이 담긴 기도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올해는 인사 시기마저 늦어지면서 앞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김없이 올해도 주님께서 분명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워 왔고, 그동안 요리조리 도망하던 순장 직분도 순종하며 에이비 인도자 스쿨도 덜컥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원하던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 좁디좁은 길이었지만...

매주 3강씩 한 홍 목사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과 담당 목사님의 꼼꼼한 강의 리뷰와 나눔 시간으로 채워진 총 15강의 밀도 높은 교육 과정을 지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인도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닌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비밀 속에 담긴 영적 전쟁의 원리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 안에 남아 있는 쓴 뿌리와 부정적인 자아가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무너져야만 진정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예수 이름의 치유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함께 나눌 조원분들의 마음 받을 돌볼 수 있는 영적 여유와 사랑이 생겨날 수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인도자 스쿨 여정은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암전히 엮여만 있던 제 영적 야성을 다시 깨우고 예수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드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세로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 이름으로 먼저 무릎 꿇는 중보자가 되며, 삶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한 기적을 나누는 간증자가 되고 싶습니다.

2026.
05

아기학교 간증

04

1. 성웅성도 (N서초 공동체)
2. 한혜림성도 (N서초 공동체)
3. 정은성 집사 (C강남 공동체)



복음을 몸에 새기는 시간

성웅 성도 (N서초 공동체)



처음 아기학교에 참석하기 전,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기학교 광고를 보고 전도사님께 참여 가능 여부를 여쭙

본 뒤, 아내와 상의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괜히 뻘쭙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아빠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저희 기린반은 대부분이 아빠들이어서 놀라기도 하고 편안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기학교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는데, 준비해서 오기에 부담 없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간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프로그램도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어른 예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더 새롭고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헌신하신 손길들을 생각하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아기학교와 영아부 선생님들의 헌신은 정말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학교는 아이와 아빠에게는 함께 자라는 시간이었고, 엄마에게는 쉬과 힐링의 시간이

었습니다. 12시 30분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정성껏 준비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과,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점이 참 좋았습니다. 아기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지인이는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그렇게 2시간 이상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덕분에 엄마에게는 토요일 오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아이도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한 후 충분히 쉬게 되어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6주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신 분들의 헌신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말씀을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애써주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기학교에서 아이와 저는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이기보다 몸에 새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함께한 아기학교와 영아부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라, 앞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를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기학교에서 만난 사랑의 예수님

한혜림 성도 (N서초 공동체)



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말씀을 심는 기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8)”는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할 수 있음이 큰 감사였습니다. 아기학교에서는 오감 활동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경험하게 했고, 그 은혜를 가정에서도 이어가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위한 앨범을 통해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나눔을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으며 제 안에 굳어 있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도와 시간, 물질까지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자녀가 이러한 나눔의 기쁨을 아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쳐 있던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 주셨습니다. 육아의 자리에서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아기학교는 제게 쉬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부

‘사랑의 예수님’을 주제로 6주 동안 진행된 아기학교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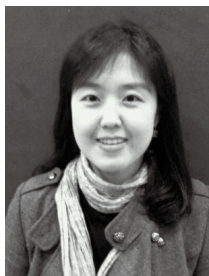
모님들과의 나눔과 따뜻한 섬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자녀를 향한 제 마음도 더욱 부드러워지고,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종강일에 남편과 다투며 제 안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생각나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게 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삶의 모습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사랑은 생명을 향한 관심이며,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기학교를 끝까지 마치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이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작은 섬김으로 시작된 큰 은혜: 아기학교

정은성 집사 (C강남 공동체)



어느덧 10년, 생각지도 못한 아기학교라는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학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첫

사역입니다. 사진 찍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갔던 것이 어느새 10년이 넘도록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평일 8주, 그리고 지난 학기부터는 토요일 6주 동안 부모와 아이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은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은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시작된 아기학교에는 많은 구도자 가정이 참여했고, 그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문화센터처럼 왔다가 믿음을 갖고 교회에 정착한 가정, 아이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된 아버님 등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믿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아기학교를 계기로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게 된 분들, 아이들이 예배에 잘 적응하게 된 이야기 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이 모든 은혜 뒤에는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오신 어머니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했습니다. 같은 말씀과 은혜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공동체이기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가정들로 흘러갔음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봄학기에는 아버님들의 참여가 많아 더욱 감사했습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아이와 함께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함께 섬기셨던 선생님들이 결혼 후 부모가 되어 다시 아기학교에 참여하신 모습을 보며, 작은 섬김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작은 아이를 사랑하는 섬김이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지는 헌신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지난 10년간 아기학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흥과 열매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모

Lined writing area for notes.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뉴젠 온가족 예배

2026. 5. 8(금) 오후 7:30 |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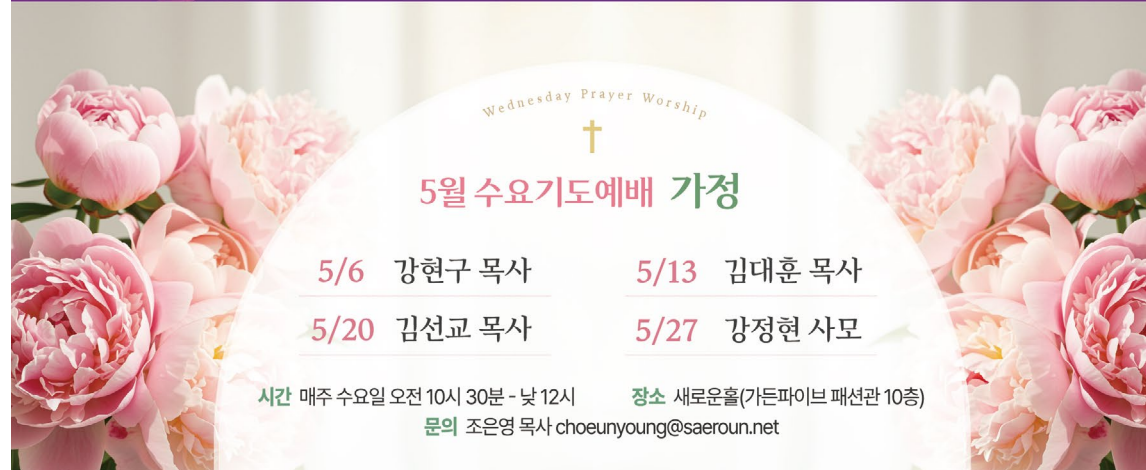
문의 | 김소리 목사, 카톡ID: saeroun0906



금요찬양집회

일시 5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가든파이브 패션관 10층 새로운홀
대상 전교인

SAEROUN FRIDAY WORSHIP



Wednesday Prayer Worship



5월 수요기도예배 가정

5/6 강현구 목사

5/13 김대훈 목사

5/20 김선교 목사

5/27 강정현 사모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장소 새로운홀(가든파이브 패션관 10층)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
